



니가 왜 거기서 나와 (2)



얼마 전 우리 동네 큰길에 또 다른 코로나19의 희생 양으로 보이는 어느 카페가 문을 닫고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것을 목격하였다. 이번엔 어떤 가게가 생길까 하며 지나쳤는데 며칠 후 다시 그 길을 지나며 본 간판은 교촌치킨 신규점! 게다가 배달 전문점이 아니고 테이블에 앉아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치킨을 먹을 수 있는 펍 스타일 식당이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오픈 날 짜까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는 당당히 개업 첫날 첫 손님으로 그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와 하등의 관계도, 아무 상관도 없는 가게일지라도 개업 첫날이 주는 설렘이라는 게 있다. 신규점이라는 흥분에 발걸음이 가벼워 어느새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내 뒤를 이어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당안으로 들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식당 안에 테이블을 띄엄띄엄 앉아야 하다 보니 금세 만석이 되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젊은 손님들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았고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마스크 너머 설렘과 신남이 푹푹 풍겨 나고 있었다.

그러나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오히려 대조적이었다. 첫날이라고 긴장이라도 한 것일까 설렘이나 기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가 반가움보다는 근심 어린 표정이 역력하더니 주문을 하려 하니 이제 막 영업 시작해서 주문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먼저 주문해놓고 남편이 오면 같이 조금만 맛을 보고 남은 것은 집으로 포장해가려는 계획이었는데 제동이 걸렸다. 갓 튀긴 치킨과 함께 맥주 한잔 할 심산이었던 나는 아쉬움에 입꼬리가 축 처지는 듯했다. 집에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기에 식당 안에서 먹는 것은 바로 포기하고 포장으로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

카운터 근처에 앉았더니 오가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다. 언제 열었냐, 배달은 어떻게 주문하나, 길을 지나다 들어와 메뉴를 둘러보는 손님, 질문을 쏟아내는 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축하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 지인 손님, 나처럼 주문 후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손님까지..... 늘 배달로만 주문해서 먹던 치킨집에 몸소 앉아있어 보니 뭔가 활력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다.

주문할 때 말했듯이 신규점이라 주문이 오래 걸렸고 어느덧 남편도 도착하여 같이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코로나만 아니면 동네 친구들 불러서 맥주 한잔 하면 좋겠다. 아지트로 팬찮겠다. 깨끗해서 좋다. 집에서 가까워서 좋다. 술 한 모금도 못하는(치맥은 못하지만 치킨은 매우 좋아함) 남편이지만 오래간만에 굉장히 신이 나서 말이 많아졌다.

그러던 남편이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다가 어? 하며 말을 시작한다. “원래 우리 동네에 있던 지점이 망했다 봐. 프랜차이즈 총괄 웹사이트에 들어가니 이전 지점은 목록에서 사라지고 신규 지점만 뜨네. 아무래도 이전 지점은 본사에서 퇴출당한 것 같아. 너무 더러워서 그랬나?” 남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규 오픈 안내 인쇄물을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화번호가 우리가 배달해 먹던 그 지점 번호와 같다. 이쯤 되면 이전 지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 물어볼 수 없는 상황.

“45번 손님”
 마침 주문한 치킨이 나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얼른 봉투를 건네받으며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아 근데 여기 전화번호가 저 밑에 지점 번호와 동일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부엌에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나와 “아 저희가 거기서 이사 왔어요.” 하는 것이 아닌가! 띠로리.....
 “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나의 딱 벌어진 입과 놀란 표정을 바로 들켜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아, 요 밑에 가게가 너무 좁아서 여기 큰 데로 이사 왔어요.”
 “아..... 같은 사장님이시고요?”
 “네. 그럼요.”

순식간에 꼬여있던 실태라가 풀리기 시작했다. 왜 전화번호가 같았는지. 본사 공식 웹사이트에 이전 지점은 왜 그리 빨리 삭제되고 신규점이 등록되었는지. 신규 매장과 어울리지 않던 오래된 오토바이가 가게 앞에 왜 세워져 있었는지. 지인 손님들이 왜 그리 많았는지. 50대 후반 사장님을 어디서 본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본 인물이었다는 사실. 그렇다! 매일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던 그분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의 호기심과 기다림 그리고 설렘이 와르르 무너지는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행여 치킨이 식을까 험레벌떡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 대박! 이 집이 그 집이고 이 치킨이 그 치킨이었구나 실망하고 있었는데 다르다. 맛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치킨은 새 기름에 라고 했던가? 온 식구들이 오래간만에 엄청 맛있게 치킨을 순식간에 먹어 치웠다.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졌다. 잠시 아주 행복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난 역시 뻗속까지 교촌과가 맞는 것 같다고. 입맛은 이리도 간사한 것이었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p>*독점* 라미라다 힐스보로</p> <p>SOLD</p> <p>2,761sqft 방4개 화3개 아랫층 방 게이트 커뮤니티</p> <p>\$980,000</p>	<p>플러튼 단독주택</p> <p>SOLD</p> <p>방4 화2 대지 6,500sf</p> <p>\$575,000</p>	<p>*최고학군* Walnut</p> <p>남가주 최고 학군 월넛 그림같은 집 3,700 sqft 방4 화4, 수영장, 두번째 주인 아주 좋은 운/ 복이 많은 집 (풍수)</p> <p>\$1,550,000</p>	<p>몬테리팍 다운타운</p> <p>SOLD</p> <p>[몬테리팍 다운타운] 출퇴근 용이하고 안전한 게이트 커뮤니티 방3 화3 1,780 sqft 2016년 지은 새집~~~ 빨리 서두르세요~~~ 마켓에 오래 있지 않을 매물입니다</p> <p>\$759,000</p>
<p>이스트베일 고급주택</p> <p>SOLD</p> <p>Eastvale Luxury Home</p> <p>3,736 sqft 방5 화5 대지 11000sqft 2006년지은집</p> <p>\$774,000</p>	<p>뉴포트비치 상가 단독건물</p> <p>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변화가 위치 9대 까지 파킹할수 있는 단독 주차장 스페이스 주위 상권들 아주 활발한 지역입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Grooming shop, Deli, Coffee shop, Retail 등등 발보아 아이랜드가 가까운 아주 좋은 위치 비즈니스 대박 나실 자리 임에 틀림 없습니다</p> <p>\$2,250,000</p>	<p>렌트</p> <p>SOLD</p> <p>플러튼 단층집 렌트</p> <p>방3 화2 넓은 거실 보너스룸 새 냉장고 새 디시워셔 새 중앙냉난방시스템 넓은 뒷마당</p> <p>\$2,850</p>	<p>렌트</p> <p>SOLD</p> <p>플러튼 타운먼트</p> <p>좋은 학군 도보거리</p> <p>\$2,500</p> <p>필란 *빈땅*</p> <p>농업용 주택 부지 40에이커 자세한 것은 전화주세요</p> <p>\$599,000</p>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Member of NAR, CAR, PW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

* 새집 분양, 알바인 및 레이크포레스드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